

서승. 2018. “동아시아에서 인간의 해방, 민족의 해방-참된 보편주의를 향하여.” 『인권연구』 1(2): 107-122.

Suh, Sung. 2018. “Liberation of Human Being and Peoples in East Asia: Toward Genuine Universality.”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1(2): 107-122.

[현장논단]

동아시아에서 인간의 해방, 민족의 해방 : 참된 보편주의를 향하여*

서 승**

목 차

1. 나의 시대
2. 대만의 옥중 동지
3. 항일전쟁승리 70주년
4. 끝으로 인권

1. 나의 시대

미군이 오키나와에 상륙하고 일제가 패망의 벼랑에 몰린 1945년4월 3일, 나는 재일조선인 2세로 일본 교토의 북쪽 산골에서 태어났다. 일본사회의 차별과 배외주의 속에서 나의 반항심과 민족의식은 형성되었다.

나의 학생시대는 반 파시즘 전쟁에서 승리한 소련이 사회주의 국가로서 권위와 활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문화혁명을 제창한 중국은 현실 비판적인 세계 젊은이들의 희망이던 시대였다. 전쟁 전 군국주의에

* 이 글은 2018년11월17일, 화동사범대학 미디어(傳播)학원 아시아 마르크스주의 전파연구소 출범기념 심포지엄 기조강연 “동아시아 민족해방투쟁 속에서 살며”을 보완 수정한 것이다.

** 우석대학교 석좌교수, 동아시아평화연구소

의해 가장 혹독한 탄압을 당한 일본의 운동가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파시즘의 패배로 인해 정의가 입증된 마르크스·레닌주의, 즉 공산주의·사회주의 사상의 전성기가 시작됐다. 한반도는 해방과 함께 분단이 시작되었다. 한국전쟁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고도 살아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항일·반미라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했다. 대한민국은 ‘반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정부가 수립됐다. 남과 북을 나는 38선은 이념 대결의 최전선이였다.

내가 중학 3학년 때, 교토 시내 곳곳에서 ‘미일안보조약’ 반대시위가 벌어졌다. 일본 전체가 안보조약 반대투쟁의 파도 속에 휩쓸려 들어갔다. 세계적으로도 학생운동이 한창인 시대였고, 일본도 그랬다. 반전, 반군, 평화, 저항, 사회과학적 사고, 마르크스주의가 빛나는 시대였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나는 일본에서 차별에 맞서고 존엄 있는 인간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조선인고등학생모임’을 시작했다. 학교에서는 일본학생들의 조선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조선문화연구회’를 만들었다. 그 당시 나는 민족분단과 미군의 주둔, 박정희 군사독재 지배 아래 있는 한국의 현실과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피 억압 민족의 독립운동과 민족해방투쟁, 월남전쟁에 반대하는 반미·반전운동, 그리고 불의한 현실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더 높은 정신세계를 향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좌익서적과 역사 서적을 탐독하곤 했다. 『공산당선언』, 『공상에서 과학으로』, 『제국주의론』, 『일보전진 이보후퇴』, 『국가와 혁명』, 『모순론』, 『실천론』 등등을 읽었지만, 역시 읽기 쉬웠던 소련과학아카데미에서 출판된 『유물변증법』, 『사적유물론』이나 아이스치(艾思奇)의 『유물변증법과 사적유물론(辩证唯物主义与历史唯物主义)』, 류샤오치(劉少奇)의 『청년의 수양 10장』, 『무엇을 할 것인가』와 같은 일본의 계몽적 좌익사상 등에 의해서 나의 초보적인 사상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조선현대혁명운동사』나 『조선근대민족해방운동사』 등의 조선혁명에 관한 책도 읽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내가 살았던 재일조선인의 생활문화와 이질적인 일본사회에 대해서 위화감과 반감을 느낀 반면, 동아시아 문화의 근원인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는 이득한 그리움이 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 고단사(講談社)의 세계명작집에서 나온 엘리자베스 루이즈의 (Elizabeth F. Lewis)의 『양쯔 강 소년 (Young Fu of the Upper Yangtze)』이라는 책을 보았다. 충칭의 구리세공장의 공방에서 도제생활을 하는 소년의 성장 스토리인데, 안개와 물지게꾼이 흘리는 물로 미끌미끌하고 찜통 같은 충칭의 골목에서 일하는 서민들의 일상에 대한 묘사에 빨려 들기도 했다. 펄 벅(Pearl S. Buck)의 『대지(The Good Earth)』 3부작은 중학교에 들어가서 읽었다. 이 두 작품은 모두 중국에 사는 서양인들의 눈을 통해 중국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적인 편견도 있겠으나, 외부 사람의 눈으로 ‘중국적’ 중국의 풍토와 생활 특징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듯했다. 중학교 1학년 여름 방학에는 매일 도서관에 가서 요시카와 에이지의 『삼국지』 10권을 탐독했다. 삼국지 독자들이 대부분 그러 하듯이 나도 10번은 읽었을 거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에드가 스노(Edgar Snow)의 『중국의 붉은 별(Red Star Over China)』을 읽으며 중국혁명의 생생한 모습을 접했다. 엄청난 충격을 받으며 중국혁명에 관한 책을 섭렵했다. 일본의 대학에서는 안보투쟁의 열기가 아직도 식지 않았고,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조반유리(造反有理)”, “자기부정”을 외치는 학생들의 ‘학원투쟁’이 한창이었다.

나는 1964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찾아갔다. 할아버지 고향인 충남 청양을 갔고, 논산에 사시는 외할아버지도 만났다. 서울에서는 시내 각처에서 “매국적인 한일회담” 반대시위가 벌어졌고, 학생들을 진압하는 기동경찰의 최루탄 연기는 매캐했다. 나의 대학생활도 한일기본조

약 반대투쟁으로 시작했다. 내가 가입한 ‘재일한국학생동맹’은 모국의 학생운동에 호응하여, 한일기본조약 반대, 군사정권반대(반군정) 운동에 매진했다. 나는 시위를 계획하여, 학생들을 조직하고, 시위를 위한 선언문, 전단, 포스터, 신문 만들기 등에 모든 시간을 투입하였기에 공부할 시간이 있을 수가 없었다. 오다가다 전철에 앉아 잠시 잠시 읽어 본 책들이 오히려 기억에 남아있다.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대학을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대학 전체가 휴학, 휴강, 대학폐쇄 등으로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이 별로 없었던 탓이었을 거다.

동아시아에서는 베트남의 북위 17도선과 한반도의 38선, 그리고 대만해협이 모순의 집결점이자 열전으로 이어갈 수 있는 냉전의 최전선이었다. 베트남에서는 이미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고 있었다.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군대를 베트남 전쟁에 파병했다. 베트남에서의 미군의 공격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한반도에서의 제2전선의 구축이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전쟁위기가 고조되어 있었다. 세계는 온통 베트남 전쟁에 대한 비판과 혁명의 열기로 넘쳐났다. 그 와중에 나는 일본에서 차별을 받는 재일동포의 처지를 해결하려면, 반미·자주, 민족해방, 반독재 투쟁을 통한 민족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조선인으로서 제 구실을 해야 한다는 자각과 자격을 갖추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말의 습득과 우리 역사, 정치, 경제를 배우고 싶었다. 그래서 1968년 대학을 졸업하자, 한국유학의 길에 올랐다.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에서 1년 동안 우리말을 배우고, 이어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학교에서 공부와 교우관계를 통해 나는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으며, 사회 구석구석의 민중들의 모습도 보았다. 내가 서울에서 하숙한 곳은 고 김상현 전 국회의원 집이었다. 그는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의 가장 유력한 대항 후보였던 김대중 후보의 선거참모였기에 독재정권의 가장 중요한 공격목표이기도 했다.

그 집에 하숙한 나는 자연히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된 것이다.

1971년 3월 6일, 군정보기관인 보안사령부에 체포되어 19년의 옥중 생활을 하게 되었다(『옥중19년』(진실의 힘 출판사, 2018) 참조). 한국의 정치범 감옥은 당연히 한국의 정치적 모순의 집결지이었다. 19년이라는 긴 세월을 옥살이에 빼앗겼지만 내가 얻은 것도 많았다. 우선 독재정권의 감옥에는 반미자주통일운동, 반 군사독재운동, 정권 비판 등으로 사회의 각계각층이 투옥되어 있는 곳이라서, 옥중에서 한국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나중에 대통령이 된 김대중 선생을 비롯해 국회의원이나 각 분야의 지도자로 활약을 한 분들과 인연을 맺었다. 그분들은 내가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단단한 기반이 되었다. 다음으로 과거에 지하당 당원이나, 북에서 파견되어 온 공작원, 빨치산투쟁을 하던 사람 등 정통 혁명운동의 활동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생한 조선혁명사의 한 면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반공법 위반자나, 학생운동으로 들어온 시국사범들을 만나 한국사회의 모순을 낱알이 알 수 있었다. 감옥을 통해서 권력, 인권, 폭력장치로서의 국가 등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다. 옥중생활은 나에게서 귀중한 청춘의 시간을 앗아갔지만, 나를 조국의 역사적 맥락 속에 확실히 자리매김해주었다.

2. 대만의 옥중 동지

19년의 옥중생활을 마치고 1990년 2월 28일 풀려났다.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했다. 1989년 소련의 붕괴는 세계의 정치지형과 사상의 흐름을 바꿔버렸다. 자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하고, 사회주의 사상과 운동은 큰 타격을 받고 쇠퇴했으며,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역사의 종언”이 선언됐다. 세계는 평화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일국패권주의, 미국의 가치와 자본주의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파괴를 의미하는 ‘테러와의 전쟁’, 네오콘(신보

수주의),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의 파시즘의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출소하자마자 나는 넓은 세계로 튀어나갔다. 일본에서 1년을 지낸 다음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로 옮겨 2년 반 생활했다. 미국을 근거지로 하면서 일본과 미국, 유럽, 남미 등에서 나의 옥중생활 경험과 옥중에 3~40년 간 갇혀 있는 한국 비전향장기정치범들의 석방과 고문 반대를 호소했다. 6~70년대 베트남 반전운동과 히피문화의 본거지였던 버클리에서 나는 종교인, 지역의 코리안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운동을 만날 수 있었다. 버클리를 기점으로 미주, 유럽 남미에 이르는 폭넓은 지역에서 강연 여행을 계속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나의 관심은 인권에서 평화로, 동아시아의 근현대사에서의 제국주의 문제로 옮겨갔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경험한 인권운동은 많은 경우 일상의 차별문제에는 민감해도, 역사적인 제국주의 침략 범죄, 즉 노예제와 식민지주의 및 그 결과물인 반공독재권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용적이고, 보편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잣대로 재는 잘못을 범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미국이나 유럽의 Center for Torture Victim과 같은 인권단체는 전쟁이나 고문의 희생자들의 구제나 지원에 치중하여, 그 발생원인인 제국주의의 국가폭력 문제를 직시하려 하지 않는 듯 느껴졌다. 말하자면 ‘사후약방문’ 격이라 생각했다. 서구적인 인권론은 역사적 성찰과 국가폭력의 본질에 다가가지 않고, 피상적이고 양비론적이었다. “언론, 정치의 자유가 없으니, 인권이 없다”는 식으로 오히려 피압박민족의 주권·자주를 제한하고, 해방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마저 숨기지 않았다. 나는 좀더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보고 싶었다.

자연스레 내 발길은 오키나와, 제주, 중국의 연변 등 동아시아 국가폭력의 현장을 돌아보는 여정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와 대만, 오키나와 등 동아시아의 ‘정치수난자’를 잇는 동시대성과 역사성을 밝혀내

고, 그 억압의 정체를 폭로하고 제거하는 것이 어느덧 나의 과제가 되었다. ‘동아시아’란 무엇인가, 식민지, 냉전, 분단체제에 지배당해온 동아시아 민중은 누구인가를 탐구하고, 그 시대를 관통하는 전쟁과 침략, 식민지 지배와 국가테러리즘으로 점철된 ‘미국과 일본 중심의 지역지배 질서’를 ‘민중 중심의 지역질서’로 전환하고, 동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실마리를 찾고 싶었다.

내가 린수양(林書揚) 선생과 처음 만난 것은 1990년의 7월, 교토 시내의 다방이었다. 大阪대학의 수기하라(杉原達) 교수가 주선한 만남이었다. 34년의 옥중생활을 하고 ‘대만의 넬슨 만델라’라 일컬어지는 린 선생은 온화하고 기품이 있었다. 대만 타이난(臺南)현,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집안은 일제 말기에 가세가 기울었다. 그는 일찍이 진보사상에 공명하여, 광복 이후에는 신 민주주의와 신중국의 탄생에 희망을 걸고 대만이 중국으로 복귀하자고 주장하는 환중후이(還中會) 활동을 했다. 그런데 겨우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1950년 중국공산당 대만공작위원회 지하당 사건인 마더우(麻豆)사건으로 투옥되고 말았다. 그 뒤로 34년의 옥중생활을 겪었다. 린수양 선생은 대만의 출소 정치범들과 정치범 가족을 규합하여 1987년 ‘대만지구 정치수난인호조회(이하, ‘호조회’)'를 만들었다. 그는 양안통일과 사회주의를 주장하며 대만에서 오랜 정치투쟁을 하다가 2012년 베이징의 병원에서 생애를 마감했다.

린 선생은 일본 잡지 『세카이(世界)』를 통해 서 형제에 대한 강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를 이미 숙지하고 있었다. 일제 감옥의 유제가 질게 남아있는 한국의 감옥에서 생활하는 동안 나는 똑같은 일제의 식민지지배를 받은 대만에도 우리와 같은 정치범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제 통치 후에 냉전과 분단, 반공군사정권의 지배를 받은 역사는 한국과 대만이 쌍둥이처럼 닮아있었다.

일제 50년 식민통치를 받은 대만의 고참 정치범들은 유창한 일본말

을 구사했으며, 지식의 창구도 일본 미디어를 통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이나 동남아의 일부 정치범의 경우도 이와 같고, 일본어를 통해서 그들 사이에 동아시아의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주목할 점이다. 사실 대만 노동당의 중심 멤버들과 일어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더라면 나는 그분들과 그렇게 농밀한 인간관계는 형성될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에서 돌아온 후 1995년, 나는 ‘호조회’로부터 타이베이에서의 강연 요청을 받았다. 강연이 끝나고 천명중(陳明忠) 선생의 안내로 타이베이의 신덴(新店) 군인감옥을 시작으로 타이위엔(泰源)감옥, 휘따오 신생훈도소(綠島新生訓導所), 우서(霧社), 수이리(水里), 아리산(阿里山) 라우라야(樂野)부락 등 대만 정치범들과 인연이 닿는 감옥, 수용소, 투쟁 근거지, 탄압의 현장 등 중요한 지점을 찾아 대만을 누볐다. 린수양 선생과 ‘정치범 집단수용소’였던 휘따오(綠島)를 갈 때, 둘이서 한국과 대만의 정치범 감옥에 대한 8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선하다. 린 선생은 군대식으로 관리되는 이 수용소에서 무려 24년 동안 수용되어 있었다. 대만에는 정치범 사상전향제도가 없었다는 점이 꼭 인상 깊었다. 대만에서는 장제스가 ‘사상전향공작’으로 그렇게 쉽게 사람의 사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대만 혁명운동의 거목들인 그분들이 총력을 다해서 대만 현대 정치투쟁사의 현장으로 나를 안내, 환영, 접대해준 것이었다. 나는 비로소 대만에서 혁명운동을 하다 붙잡힌 난우(難友=정치범동지)들을 만난 것이다. 지금도 대만 노동당의 사무실에는 마르크스, 엥겔스와 마오쩌둥(毛澤東)의 초상화가 걸려 있듯이 그들은 가장 순수한 노농혁명사상을 견지하고자 한 분들이다.

대만은 일제 50년에 이르는 오랜 식민지 지배에 이어 미제를 등에 업은 장제스(蔣介石)의 지배를 받았다. 대만민중들의 정체성이 찢기고 무참하게 비뚤어졌다. 배금주의적 천민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자학적인 친일·친미의 노예성을 가지게 되었다. 노 혁명가들은 헌신적으로 분투

했지만, 대만에서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었다. 그에 더하여 해방 후 혼란과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결국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국가주의에 의해 회수되어버린 듯한 중국의 현실이 순수한 노농혁명을 내거는 노동당에 정치·사상적 어려움을 더하게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에서 초지일관 흔들리지 않는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그들의 입장은 고독하게 홀로 빛나며 변하지 않는 북극성과 같은 존재라고 할까? 그들은 주변의 별들이 얼마나 변했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정점(定点) 관측소 구실을 해 왔다.

린수양 선생이 이끈 ‘호조회’의 가장 큰 사업은 장제스 정권 아래서 발생한 백색테러의 진상규명과 정의 회복, 즉 과거청산이었다. 1993년 타이베이외의 류장리(六張犁) 공동묘지의 대나무 덩굴에서 쉬칭란(徐慶蘭)의 묘가 발견됐다. 1950년대 백색테러(白色恐怖)로 경찰에 붙잡힌 그는 결국 마장팅(馬場町)에서 처형되어 암매장된 것이다. 이어서 100여 구의 유골이 발견되면서 장제스 정권의 白色恐怖의 실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호조회는 이것을 계기로 과거청산운동에 집중하여, 내외여론을 고조시켜 나갔다. 그리고 1997년 타이베이에서 나와 함께 조직한 제1회 ‘동아시아 냉전과 국가테러리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때가 바로 한국, 오키나와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냉전시기의 국가폭력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때다. 아울러 동아시아 국제연대가 구체화되었다.

동아시아는 그저 세계지도에 그려진 지리적 구분은 아니다. 근대 이후 500년간 구미 열강의 침략과 지배의 발자취를 따라 아프리카가, 라틴아메리카가, 아시아가 만들어졌다. 아시아 또는 동아시아라는 정치, 역사적 개념은 아편전쟁을 계기로 이 지역을 석권한 제국주의의 침략과 지배에 의해 만들어진 피와 눈물로 얼룩진 정치·지리개념이다. 우리나라의 분단이 상징하고 있듯이 오늘날까지도 그 무서운 국가폭력의 상흔은 씻겨지지 않고 있다.

1945년 일본의 패전에 이어 일본 군국주의의 해체, 식민지 지배 청산(탈식민지)의 과제는 냉전의 시작으로 중단됐다. 동아시아 각 지역의 지배 질서는 미국 지배 하에 재편되었다.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충실한 추종자로 재생하였고, 구 식민지 지배의 협력자(친일파)들은 미국의 막강한 무력을 후광으로 구 ‘대동아공영권’의 대부분 지역에서 되살아났다. 결국 동아시아 민중은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지 못했다.

냉전은 동아시아의 탈식민지화 과정을 동결시켰다. 동아시아 민중의 최대 염원이었던 민족해방의 과제도 좌절됐다. 미국의 군사전략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해체가 중단되어 일본 군국주의의 주요 인적자원은 미국의 조력자로서 온전히 부활했다. 폭발적인 동아시아 민족해방운동은 억압당했다. 그 결과 한국, 대만, 동남아시아에서 격렬한 갈등이 분출되었고, 민간인 대량 학살사건이 벌어졌다.

냉전의 최전선이 된 동아시아에서는 분단의 벽이 한반도, 대만해협, 베트남을 가로질렀다. 군부독재의 계엄령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극단적인 국가폭력이 난무했다. 한국에서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반세기 동안 군사독재정권이 정당화되었다. 대만에서는 내전을 시작으로 37년 동안 장제스 정권의 계엄령 통치가 이어졌다. 베트남은 30년간 전란을 경험했다.

한국은 미군의 지배와 반공·분단·국가보안법 체제가 시작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주 4·3사건을 비롯, 5·18 광주학살에 이르기까지 국가폭력이 빈번히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되었다. 대만에서는 1947년의 ‘2·28사건’부터 ‘50년대 백색 테러’까지 학살사건에서 수만 명의 민중이 살해되었다. 이들 희생자는 ‘폭도’, ‘반란분자’, ‘통비분자’, ‘빨갱이’ 등으로 불리며, 반역자, 범죄자로서 오랫동안 세간에서 버림받은 존재였다.

1980년대 대만과 한국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드디어 국가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청산과제가 반독재정권의 중심적 과제로 등장했다. 1989년 냉전이 붕괴되면서 추동력이 생겼고, 국가폭력에 의한 대량학살사건의 명예회복과 배상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한국에서는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작으로 ‘5·18민주화운동(광주항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주 4·3 특별법’에 이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성립되었다. 그리고 과거사 통합법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대만에서는 1995년에 ‘2·28사건’에 대한 보상법이 성립하였고 1998년에 ‘계엄시기반란 및 비첩 부당심판보상조례’ (戒嚴時期反亂匪諜不當審判案件補償條例)가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은 동아시아 각국에서 과거청산의 진행, 즉 ‘이행기의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실현인데, 문제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일본의 역사청산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인식, 교과서문제, 일본군위안부, 조선인·대만인의 야스쿠니 강제합사(合祀), 강제연행, 관동대지진에서의 조선인 학살 등의 문제는 모두 여기에서 기인한다. 관건은 미일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민중중심의 지역질서의 실현이며, 그때서야 동아시아의 역사청산은 비로소 마무리 될 것이다.

3. 항일전쟁승리 70주년

2015년 9월3일, 텐안문(天安門) 광장에서 열린 ‘중국인민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를 나는 중국경제무역대학 숙사에서 TV를 통해 봤다. 다음날 루거우차오(盧溝橋)에 있는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에 갔다. 거기서는 특별전 ‘위대한 승리, 역사적 공헌’이 열리고 있었다. 전시의 취지로 1945년 항일전쟁의 승

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었는데 인상적이었다.

- ① 근대 이후 외세의 침략에 반대하여 처음으로 거둔, 완전히 승리한 민족 해방 전쟁이었다.
- ② 중대한 위기에 빠진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으로 이어가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 ③ 중국 인민 항일전쟁은 세계적 반 파시즘 전쟁의 중요한 구성 부분(동방 주전장)이다.
- ④ 전 세계 인민의 앞에 약자가 강자에게 승리하는 훌륭한 모델을 만들어 냈다.
- ⑤ 세계 평화의 위대한 사업을 차지하게 됐다.

이 전시는 시진핑의 9월3일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연설의 취지를 따른 것이라서, 매우 중요한 항목들이다. 우선 아편전쟁의 치욕과 그 이후 100년에 이르는 제국주의 침략을 물리친 것이 항일전쟁 승리의 큰 의미이고, 연속되는 제국주의 침략과 투쟁에서 ‘처음’으로 얻어낸 승리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것이 오늘날 대국이 된 중국의 기틀을 잡았으며, 그 전쟁은 반파시즘 전쟁으로 정의의 편에 서는 전쟁이며, 그 승자는 세계사에서 승자라는 것이다.

반 파시즘 전쟁에서 싸운 연합국(United Nations)이 승리한 후에도 연합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연합(United Nations)이 조직됐다. 목적은 ‘평화’의 유지, 즉 파시스트의 부활을 감시하여, 부활의 기미가 있을 때 바로 집단안전보장이라는 이름의 집단적 압도적 폭력으로 분쇄하는 뿌리 뽑는 체제를 만든 것이다. 중국은 반파시즘 전쟁에서 연합국의 중요 성원이었고, 일제와 싸우는 동아시아 전선의 주 전장이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유엔 창립자의 하나가 되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자리를 누렸던 것이다. 그래서 국제적 위치에서 전

쟁범죄 국가인 일본과는 천양지차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 시기에 항일과 반 파시스트를 들고 나왔는가? 중국공산당은 국공내전(해방전쟁)에서 이겨 중국을 해방시키고, 대륙에서 권력을 확립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 전국토의 0.3% 밖에 점유하지 못하는 대만의 장제스 반공친미정권을 정통정부로 인정하는 역지를 부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은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인 인증을 받지 못했다. 국내적으로도 중국은 국공내전과 6·25전쟁, 대약진, 문화대혁명의 역경과 혼란을 겪었으며, 그 이후에도 민생 문제에 골몰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국민의 통합과 통합의 방법(민주주의와 법치)이라는 정치적 불씨를 안고 있으며, 경제면에서도 불안을 안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제 물질적으로 몰라보게 발전하였으며, 세계적으로도 명실 공히 대국으로 인식되어 국내외에 중국의 역사적인 위치를 과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세기에 가까운 반제국주의 민족해방투쟁을 이겨 내고, 아편전쟁의 굴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승리선언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일본의 아베는 대일본제국의 명예회복을 내걸고 나섰기에 반 파시즘 전쟁에서 일본은 패자이자 범죄자이며, 중국은 승자이자 심판자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역사평가와 정의의 실현은 73년 전, 일제가 패망했을 때 이뤄졌어야 했다. 하지만 반 파시즘 전쟁에 승리한 미국은 전쟁범죄자들을 반공세력으로 포섭함으로써 파시즘의 청산이 아니라 파시즘을 온존하고 부활시켰다. 전쟁 종료 후 70년이 지나고서야 비로소 “민중중심의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확립”이라는 구상과 비슷한 말이 중국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는 1994년 ‘냉전과 국가테러리즘’ 국제심포지엄에서의 내의 제안과 유사한 구상이다.

근대 이후 서구제국주의자들은 총칼로 이 지역 민중들의 몸에 ‘아시아’라는 소인을 찍고, 채찍으로 ‘유럽근대’의 규율을 체화시켰다. 동

아시아 민중은 자신들의 언어가 아닌, 노예의 말로 근대적인 자아를 형성해 왔다. 이 지역의 민중들은 자신들에 대한 서구(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화라는 범죄에 대해 인간과 민족의 해방이라는 역사의 정의를 이뤄냈다. 한국의 ‘촛불’ 행동도 민중이 주권자임을 천명한 것과 같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과정은 바로 민족주권 회복을 위한 과정이다. 나는 ‘동아시아의 민족해방투쟁 속에서 살며’ 지금 그 출구의 광명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4. 끝으로 인권

30년 전쟁 후 유럽에서는 나라마다 자국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독립적이고 평등하다는 주권국가 체제가 등장했다.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전근대적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근대적 ‘개인’이 탄생했다. 막강한 국가폭력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 ‘국가’ 아래 발가벗겨진 ‘개인’이 ‘주권자’로 재편되었으며, 국가폭력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인권’이 발명되었다. 헌법을 통해 국가의 자의적 폭력 행사를 제지하고, 주권자인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교묘한 장치다. 인간 ‘개인’이 지구와 우주의 중심에 위치하여, 자기자신과 이 사회의 최종 결정권자이며, 헌법 자체가 주권자의 권리의 보호장치라는 의미에서 인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법에 우월하고, 모든 법을 통제하는 도구다. 그러기에 헌법은 국가의 개인적 자유의 침해를 제지하는 권리의 목록인 인권규정을 일람표로 제시하고, 흉포한 폭력장치인 통치기구를 최대한 쪼개고, 제한하려는 것이니, 헌법자체가 즉 ‘인권’인 것이다.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인간에게 주권이라는 ‘권리’와 더불어 주권자로서의 ‘의무’를 부가함으로써 무정부 상태를 지양하고, 공동체와 끈을 달았다고 할 수 있으며, 실존하지 않는 보편적인 자연법을 들먹이며 ‘저항권’이라는 폭력을 최종적 수단으로 하여 주권자임을 증명케 하는 구조를 만

들어 냈다.

다만 이러한 자체 완결적인 ‘인권의 보편성’은 인권개념이 탄생하자마자 배반당하게 된다. 즉 ‘인권’은 유럽 ‘문명’, 그것도 계급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특수한 세계에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유럽이 아닌 ‘야만’의 세계나 백인남성 외의 세계에서는 그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인권의 보편성’이란 애당초 만들어진 허구에 지나지 않으나,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원적인 구도에 의해 제시된 세계는 계급과 제국주의의 국가폭력에 의해 단절되고 지배받고 있으며, ‘인권’의 본질은 보편적이지도 존엄하지도 않은 것이다. ‘문명과 야만’이라는 차별과 지배의 언어에 의해서 노예제와 식민지지배라는 ‘인도에 대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가 정당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 근대가 만든 조약체제 자체가 배태한 ‘폭력으로서의 국제법’은 제국주의의 세계 지배를 위한 ‘부드러운’ 무기로서 종횡무진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일상의 폭력이나 차별에 맞서는 ‘인권’은 유럽이나, 선진국이나, 문명국과 같은 한정된 특수성의 세계의 테두리 안에서 개인에 대한 방호적이고 치유적인 일정한 구실을 해왔다. 그러나 ‘보편적 인권’이 ‘문명과 야만’이라는 구조적 폭력 위에 안주하면서 ‘인권’의 수호자인 양 고상하게 설교를 깎다면, 오만한 위선일 뿐만 아니라, ‘인도에 대한 범죄’의 공범자가 되는 것이다. 언뜻 반패권적이고, 반권력적으로 보이는 평화, 민주, 인권이라는 가치들도 서구에서 태어나 서구의 안경을 쓰고 세계를 노려보고 있으니, 결코 보편적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직시하며 인권의 근본 문제를 되짚어 봐야할 것이다.

나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되던 해에 태어났다. 해방과 더불어 우리의 머리 위로 분단이라는 부조리가 마른 하늘에 번개처럼 떨어졌다. 그후 한반도에서 반세기 이상 이어진 냉전과 전쟁의

상훈은 내가 살아온 삶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나는 부조리와 분단, 냉전의 시대에 간헐 살면서, 통일을 열망했고 인권과 평화의 시대를 꿈꿨다. 올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서서히, 70년 세월 동안 꿈쩍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분단의 선이 서서히 열어져 가고 있다. 통일의 열기가 그 힘을 잃은 요즘, 살아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겨우 625전쟁 종결의 문턱에 들어선 것이고, 언제든 원래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무수한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다. 일제의 유산이자 냉전시대의 표상인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이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된 지금도 엄존하고 있다. 내가 감옥에서 겪어온 폭력과 광기와 비인간성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다. 나는 분단과 냉전의 시대를 회고하면서, 그 시대의 유물들이 이제는 기념과 기억의 영역으로 자리를 옮겨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반도가 ‘전쟁의 땅’에서 ‘평화의 땅’으로 거듭나기를 꿈꾼다. 통일이란 두 개로 깨진 그릇을 다시 붙이는 것이라기보다, 실질적으로 분단의 고통을 하나하나 해소해 가는 과정일 것이다. 우리에게 최대의, 그리고 근본적인 인권문제는 바로 민족해방의 과제인 것이다.